주요용어 : 청소년, 흡연, 현상학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정 혜 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 하거나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청소년이 처한 사회, 특히 학교사회는 대부분이 입시교육과 같은 시험준비교육에 치중하며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이러한 많은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고 공부이외의 취미활동 및 특별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의 결과로 불안, 좌절, 우울, 일탈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흡연이나 음주, 약물남용, 가출, 폭력, 자살 등을 시도하기도 한다(Chung, 2000; Kam et al, 2000; Kim & Kim, 1998).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청소년 흡연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00여종은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과 기관지 섬모기능에 독성작용을 하는 물질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Hoffman et al, 1983). 또한 흡연은 시작연령과 흡연량에 따라 폐암발생과 관련되어 있어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폐암발생률이 높으며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흡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특히 흡연시작시기가 어릴수록 폐암발생과 관련이 높고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세에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의 폐암발생률은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1985). 이러한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여 신체적·사회적·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흡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낮아져 가는 흡연 연령과 흡연에 대한 의식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Ju, 1994; Kan & Kim, 2000).

실제 청소년 흡연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나 약물남용, 비행은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흡연동기에 있어서도 전술된 원인적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ung, 2000; Connell, 1979; Ju, 1994).

이렇듯 흡연은 사회적·환경적·심리적 및 생물학적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투고일 2001년 3월 26일 심의일 2001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01년 8월 13일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로써 일단 습관화되면 고착되고 교정하기 힘든 행위이다(Hyun, 1998). 이러한 측면에서 흡연은 예방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나 금연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주관적 경험이 내포된 흡연행위에 대하여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관련요인분석, 흡연에 대한 태도조사, 건강관련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대상자 관점에서 그 경험의 의미를 구조화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좀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흡연경험이 있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탐색해 봄으로써 흡연예방 및 금연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문제

1) 고등학교 남학생이 경험한 흡연의 의미는 무엇인가?
2)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경험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 S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흡연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연구참여자 수에 있어서 현상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어 자료가 포화에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 2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3명이었고,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6명, 없는 경우가 2명이었다. 흡연시작시기로는 초등학교 때가 1명, 중학교 때가 4명, 고등학교 때부터인 경우가 3명이었다.

2. 연구자 훈련과정

연구자가 주된 도구가 되는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에 있어 본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바 있으며, 현상학, 근거이론적 접근, 인터뷰 기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에 관한 학회 및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질적연구에 있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한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 앞서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서는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의 토론과 지도를 받아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였으며 참여자들과의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친밀감 형성에 주력한 후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시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허락하에 녹음기와 현장 노트를 사용하였으며, 대화내용은 가능한 한 면담 후 즉시 녹음 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면담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연구자의 의도로 인한 응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고 부담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공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시 사용된 주된 질문내용은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흡연 후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까?", "청소년으로서의 흡연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흡연하게 되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등이었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30분~1시간 정도로 다양했으며, 1인당 면담횟수는 평균 3.5회였다. 면담을 위한 장소는 학교 상담실과 참여자가 과외학습을 하는 학원의 빈 강의실, 조용한 제과점 등이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한 시간을 미리 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한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Burns, 1988)을 고려하여, 본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으며, 대상자가 제공해 준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참여자와의 면담내용 및 신분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하였고, 자료수집 도중이라도 참여자가 연구참여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5.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는 자신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심도있게 이야기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청소년이 흡연경험에 있어서의 현상의 진수(essence)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Giorgi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Giorgi의 5단계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진술한 기술된 언어(native description)를 진실되게 이해하면서 선소여적 행간을 파악하여 의미단위(meaning unit)를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미단위로부터 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이해한 전형된 의미단위를 형성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형된 의미단위들을 통합하여 통합된 의미단위를 규명함으로서 총체적인 시각을 부여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통합된 의미단위로부터 참여자의 유형별 구조적 상황을 기술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 구조적 상황으로부터 보편화된 일반적 구조적 상황을 확인하여 참여자의 체험을 드러내어 서술한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자료분석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의미기술이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참여자와의 면담자료에서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추출된 의미단위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한 전형된 의미단위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전형된 의미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통합된 의미단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형별 구조적 상황을 기술하였고 각 유형별 구조적 상황으로부터 보편화된 일반적 구조적 상황을 확인하였다.

1. 의미단위로부터 추출된 전형된 의미단위

원자료에서 추출된 의미단위로부터 규명되어진 전형된 의미단위는 주변권유, 들쑤심, 졸라댐, 흥미로움, 재미있음, 새로움, 신기함, 끌림, 남성다움, 대접받음, 어른스러움, 우쭐함, 멋있음, 어우러짐, 즐김, 자연스러움, 당연함, 반복됨, 지속됨, 짓눌림, 화남, 괴로움, 허전함, 답답함, 시달림, 숨김, 속임, 부담스러움, 미안함, 죄책감, 떳떳하지 못함 등이었다.

2. 통합된 의미단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주변권유, 들쑤심, 졸라댐은 '주변의 부추김'으로, 흥미로움, 재미있음, 새로움, 신기함, 끌림은 '막연한 호기심'으로, 남성다움, 대접받음, 어른스러움, 우쭐함, 멋있음은 '남성다운 멋스러움'으로, 어우러짐, 즐김, 자연스러움, 당연함은 '또래와의 관계유지'로, 반복됨, 지속됨은 '습관화'로, 짓눌림, 화남, 괴로움, 허전함, 답답함, 시달림은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 숨김, 속임, 부담스러움, 미안함, 죄책감, 떳떳하지 못함은 '가족에 대한 은폐'의 의미단위로 통합되었다.

• 주변의 부추김
: 「주변권유」「들쑤심」「졸라댐」

"애들이 한 대 피워 보라고 하면서 줘요. 그러면서 피우게 되죠."
"애들이 모이면 담배 돌리면서 피라고 그래요"
"우리 삼촌이요 남자는 담배 피울줄 알아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주더라구요"
"야 너도 먹어봐(피워봐)! 먹어보라니깐. 그래야 대화가 되지-'그러거든요"
"처음에 내 친구가 담배도 못피면 병신취급받는다고..."
"자꾸 피워보라고 해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것 좀 보고 싶데요"

• 막연한 호기심
: 「흥미로움」「재미있음」「새로움」「신기함」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잖아요. 피워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구요."
"정말 대개 궁금하더라구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서 재미로 시작했

어요."

"어른들 담배피울 때 보면 나도 피우고 싶고.."

"담배피울 때 나는 연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나 할까..."

"새롭게 변신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끌리더라구요"

"한번 두 번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슈퍼에 갔는데 누가 담배를 사길래 나도 한번 담배 주라고 해봤어요. 진짜 주는거 있죠"

· 남성다운 멋스러움

: 「남성다움」「대접받음」「어른스러움」
「우쭐함」「멋있음」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큰 성인으로 봐주잖아요"

"남자라는 느낌이 더 들더라구요."

"인기 짱인 애들이 담배를 멋있게 피우잖아요"

"그래도 보통 남자들은 담배피우잖아요"

"남자답잖아요."

"TV에서처럼 나도 담배 피우면 그렇게 멋있어지는 것 같고..."

"나도 다 컸으니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우쭐한 기분도 들고..내가 큰 거 같기도 하고..."

· 또래와의 관계유지

: 「어우러짐」「즐김」「자연스러움」「당연함」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피우게 되요."

"요즈음 안 피우는 애들 거의 없어요, 많이 들 피우거든요."

"인제는요 담배 안 피우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냥 당연하게들 해요."

"그야 기본이죠. 술마시면 당연히 담배 피우고 그러죠."

"친구들하고 그렇게 즐기는 거죠 뭐..."

"애들하고 놀때는 다들 담배피우는데요 뭐...친구들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고..."

"걔네들 다 피우는데 저라고 뾰족한 수 있겠어요."

· 습관화

: 「반복됨」「지속됨」

"꼭 이유가 있어선 가요. 그냥 피우는 거죠, 자꾸 손이 가고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피우는 것 같아요"

"이제 안 피우면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밤먹고나면 의례히 피우게 되고 원가 생각할때도 피우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피우는 것 같아요"

· 스트레스 해소수단

: 「짓눌림」「화남」「괴로움」「허전함」
「답답함」「시달림」

"시험기간이나 화날 때 많이 피우죠"

"남자들 담배피울 때 스트레스 해소되죠"

"고민 생기면 더 마시고 더 피우게 되요"

"안 피우면 답답해요"

"그냥 무료하고 안 피우면 공허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시험공부는 안되고, 뜻대로 되지는 않고 마음은 무겁고 견디기가 힘들 때.."

"학교에서나 집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쌓이는데요"

"안 피우면 허전하고 그래요. 공부할때도 입이 심심하고 그럴때가 있어요. 피우고 나면 훨씬 나아요"

"우리도 쌓이면 그때 그때 풀어야지요, 술마시든지 담배피우든지.."

· 가족에 대한 온정

: 「숨김」「속임」「부담스러움」「미안함」
「죄책감」「떳떳하지 못함」

"들키면 큰일나요. 집에 갈때는 껌씹고 가죠. 아니면 향사탕 같은거요"

"담배는 제 비밀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숨겨놔요."

"아빠는 저한테 잘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너는 내가 믿는다'그래요. 대개 부담되죠, 아빠 생각하면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식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일부러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상한게요, 우리 아빠가 집에 계시면 별로 피우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 것 있죠, 아빠가 무섭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아마 아빠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떳떳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 많이들 피우니깐 우리 부모님도 나도 하리라고 생각은 하실텐데 따로 얘기는 안했어요. 저도 굳이 얘기는 안했고"

"엄마는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은 안해요. 이것(담배) 때문에 잔소리는 안하시는데도 내가 괜히 미안하고 그래요."

"알면 죽어요. 식구들하고 TV보는데 청소년 흡연이 어쩌구 어쩌구 나오니깐 '너는 안하냐?' 그러는데 되게 찔리는 거 있죠?"

"화장실에서 피우고 나오다 들켰거든요, 피운지 얼마 안됐다고 해놓고 절대 안 피울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안하기는해도 그게 ...."

3. 유형별 구조적 상황기술

유형 1.

참여자 1과 3은 중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주변 성인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여 자신도 아버지의 담배를 몰래 가져다가 피우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권하게 되고 이젠 거의 습관화되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왠지 답답하고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부모님께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 2.

참여자 2와 7은 고등학교에 진학 후 친구들의 권유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남자로서의 흡연을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성인으로써 대접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와 흡연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흡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기대나 신뢰 때문에 흡연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혹시 가족이 알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형 3.

참여자 4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하게 되면서 대학진학에 대한 부담감과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민하던 중 스트레스 해소방법의 하나로써 스스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의 흡연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허전하고 답답할 때, 그리고 술을 마실 때나 노래방 등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우게 된다고 하였다.

유형 4.

참여자 5와 6은 중학교 시절 연애인들의 담배피우는 모습이 멋스러워 보여 모방하고 싶은 심리적 충동으로 흡연하기 시작하였으며 만연화된 또래들의 흡연에 자신도 그들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노출된 적이 있으나 이해해 주시는 듯 했으며 아직은 흡연량이 많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흡연으로 인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도 잘되며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유형 5.

참여자 8은 초등학교 시절 삼촌의 부추김으로 장난삼아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맞벌이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방과 후 주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아무런 간섭과 통제없이 혼자서 몰래 흡연을 해 왔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도 흡연은 계속되고 있으며 만성화된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긴 하나 흡연하는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유지와 자신의 외지부족으로 금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일반적 구조적 상황기술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주변의 부추김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예기치 못한 우연한 기회에 충동적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작된 흡연은 참여자로 하여금 성인으로서 대접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여 우쭐한 기분을 맛보게 하고 더불어 이들은 흡연으로 자신의 남성다운 멋스러움이 한층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참여자의 흡연행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흡연은 점차 습관화 되어간다.

또한 참여자는 또래집단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흡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래들 대부분이 흡연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어우러지는 놀이문화에서 흡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는 오늘날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한정된 자유와 수많은 제약들을 체험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들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참여자는 가중되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흡연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듯, 흡연은 참여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참여자는 흡연행위를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부모의 강한 신뢰와 기대에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차마 흡연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숨기거나 감추면서 생활하였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참여자는 분위기에 따라 또래들과의 흡연은 자연스러운 행위로 즐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흡연은 막연한 호기심이나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무분별한 외식 등으로 시작되어 점차 만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흡연이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어 습관화되지 않도록 흡연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Ⅳ. 논 의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인격완성을 위한 심리적 변화와 격동을 치르는 시기로서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예정된 발달계획에 따라 성장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 특히 또래의 영향이나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등과 작용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 반응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불안이나 좌절, 우울, 일탈행동 등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흡연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Ju, 1994; Kam et al, 2000; Kan & Kim, 2000).

이에 본 연구자는 실제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흡연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친구나 기타 주변인들의 권유와 부추김, 그리고 막연한 호기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layton(1991)과 Kim(199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여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흡연은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별다른 비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동기로 시작된 흡연에 대한 느낌을 남성적이거나 혹은 성인이 된 것 같고 멋있어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남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은 흡연을 마치 남성화, 성인화 과정으로의 전환단계로 인식하고 있어 남성으로서, 성인으로서의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 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흡연의 경우 금연교육시 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Kim & Kim(1997)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에 대한 반항심의 작용과 흡연을 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흡연이 지속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또래관계유지를 위한 수단과 스트레스 해소 방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흡연의 권유자가 대부분 그들의 친구이므로 또래의 흡연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Bae et al, 1994; Ju, 1994; Kim et al, 1998; Koo, 1999)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또래집단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이는 흡연뿐만 아니라 금연에 있어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또래집단을 고려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금연과 재흡연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연하는 친구가 있으며 흡연하는 친구가 적을수록 금연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Hymowitz, Sexton, Ockene & Grandits, 1991), Bertrand & Abernathy(1993)는 청소년들의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친구들의 흡연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흡연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자신만이 아닌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되어 있는 행위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흡연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적당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교육적, 문화적

현실 속에서는 무료함이나 시달림, 허전함 등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개인주의적 성향, 기타 가정,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흡연을 자극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Kam et al, 2000; Kim & Kim, 1998).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이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올바른 놀이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참여자들인 남자 고등학생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부모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흡연행위가 가족에게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와 가족에게는 흡연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아직은 부모의 통제아래 있는 시기이고 부모의 기대와 신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의 흡연은 호기심이나 모방심리, 충동에 의해 시작되어 또래관계의 유지와 당면한 스트레스의 해소방안으로 지속되게 되며 성인과는 달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과 흡연의 유해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연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전략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흡연예방 및 금연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흡연경험이 있는 남학생 8명을 대상으로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경험의 전형된 의미단위는 주변권유, 들쑤심, 졸라댐, 흥미로움, 재미있음, 새로움, 신기함, 끌림, 남성다움, 대접받음, 어른스러움, 우쭐함, 멋있음, 어우러짐, 즐김, 자연스러움, 당연함, 반복됨, 지속됨, 짓눌림, 화남, 괴로움, 허전함, 답답함, 시달림, 숨김, 속임, 부담스러움, 미안함, 죄책감, 떳떳하지 못함이었으며 이를 통합된 의미단위로 구성한 결과 「주변의 부추김」과 「막연한 호기심」, 「남성다운 멋스러움」, 「또래와의 관계유지」, 「습관화」, 「스트레스 해소수단」, 「가족에 대한 은폐」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흡연은 우연한 기회나 막연한 호기심,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무분별한 의식 등으로 시작되어 또래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적절한 수단, 기호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이나 가족에게는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은 최근 청소년 흡연률의 증가추세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대한 의미구조를 토대로 좀 더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유도를 위한 간호전략마련이 있어야 할 것과 흡연경험이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비교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

Anderson, M. R. (1985). Risk of lung cancer, chronic bronchitis,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on relation to type of cigarette smok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39*, 286-293.

Bae, J. M., Ahn, Y. O. & Park, B. J. (1994). Association of stress level smoking amount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Prev Med, 27*(1), 1-10.

Bertrand, L. D., & Abernathy, T. J. (1993). Predicting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us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pproaches. *J Sch Health, 63*(2), 98-103.

Burns, P.(1988). Standards for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Science Quarterly, 2*(1), 44-52.

Chung, H. K. (2000). *A forecast model on runaway youth*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Clayton, S. (199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determinents of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Social Health, 61*(3), 115-120.

Connell, P. H. (1979).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 *Community Health, 6.*

Hoffman, D. H. et al. (1983). *Cigarette side stream stroke* : formation analysis and model studies on the up take by non smokers, presented at the U.S. Japan meeting on new etiology of lung cancer, Honolulu, March, 21-23.

Hymowitz, N., Sexton, M., Ockene, J., & Grandits, G. (1991). Baseline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and relapse. *Preve Med, 20,* 590-601.

Hyun, H. J. (1998). A study on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it's determinants-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1*(2), 217-228.

Ju, H. G. (199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smoking of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am, S., Lee, K. H., Park, K. S., Kim, J. Y., Lee, Y. J., Kang, Y. S., & Kim, S. W. (2000). Smoking and alcohol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J.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2), 233-253.

Kan, K. A., & Kim, Y. H. (2000). A research on an actual state of drinking and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i, 6*(1), 51-59.

Kim, H. S., & Kim, H. J. (1998).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1*(2), 171-187.

Kim, M. S., & Kim, A. K. (1997). The study of smoking behavior in college women : A Grounded Theory Approach. *J Korean Acad Nurs, 27*(2), 315-326.

Kim, S. H. (1997). *The study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focus on knowledge and experience of smoking of middle schools in Seoul and Kyung-gi do areas.* Master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J., Kim, M. J., Lee, H. K., Im, S. H., Jung, S. B., Choi, G. H., & Choi, M. S. (1998). Smoking state in an urban academic boy's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7*(2), 363-383.

Koo, E. J. (1999).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becoming a smoker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Experiencing

*Chung, Hae-Kyung**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high school boys smoking experiences, and to define its structure, then utilizing the results to creat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in order to protect students from smoking habit. Method: This study is based on a phenomenological approach. A group of eight male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experience in smoking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Intimate interview with participatory observation were carried out from them and the resulted data were analyzed by Giorgi's method

*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as below. Result: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experiences were found to be a direct result from the environments around them and misty curiosity, masculinity, maintenance of close relations with peers, habitualness, stress relief, and concealment from the family. Conclus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especially in an aspect from its starting point, motivational perspective, attitudes, and recent increasing rate of the juvenile smoking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problems that should be resolved. Concurrently, programs for preventing and quitting smoking should be started from the early stage of childhood as possible.

Key words : Adolescent, Smoking, Phenomenology